봉선사 조실에 밀운 대종사 승좌

10월 9일, 개산대재 및 승좌식
밀운 스님 "지계 · 보살행 실천"
운허 스님 글씨 '운허체' 배포도

남양주=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10월 9일 열린 승좌식에서 조실 밀운 대종사에게 불자를 봉정하고 있다.


'운허체'로 작성된 '이산혜연선사발원문'.

교종본찰 봉선사 조실에 밀운 부림 대종사가 10월 9일 승좌했다. 1056주년 개산대재와 조실 승좌식이 열린 이날, 한글날을 맞아 평생을 한글 역경에 매진한 운허 스님(1892~1980)의 친필로 제작한 '운허체'가 공개돼 의미를 더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9일 큰법당 특설무대에서 봉행한 1056주년 개산대재와 밀운 부림 대종사 조실 승좌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원로의원 여산 암도 대종사를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아내 박주영 여사 등 정계 인사, 김남명 25교구신도회장과 자명화 봉선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승좌식에 앞서 열린 '운허체' 배포식에서는 남양주시와 운허기념사업회가 개발한 '운허체'가 공개됐다. '운허체'는 봉선사 홈페이지와 무료폰트 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오늘 개산 1056년 기념식과 운허 스님의 한글 사랑의 뜻을 더하는 '운허체' 배포식을 함께 열게 되어 무척 뜻깊다"며 "특히 종단의 여러 소임을 역임하고 봉선사와 종단 발전에 힘써 오신 밀운 부림 대종사를 조실로 모시게 된 것은 더없는 영광이다. 앞으로 어른 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교구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명 25교구 신도회장은 "봉선사 사부대중은 조실 스님을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모시며 가르침 따를 것"이라며 "스님께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무시며 깊고 묘한 진리 전해 주시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길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 호산 스님이 불자를, 능엄승가대학장 정원 스님이 주장자를 봉정하고 삼배의 예를 올렸다. 올해로 세납 93세인 밀운 스님은 스스로를 '부목 조실'이라 칭했다.

밀운 스님은 법어에서 "교종본찰인 봉선사는 대대로 대강백 스님들이 조실을 하셨는데, 경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부목 소임만 해 온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라며 "저는 그저 '부목 조실'로 사중을 돌보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자리이타행을 하셨기 때문"이라며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오계를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보살행이 없는 깨달음은 가치가 없다. 오계를 지키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자리이타행"이라고 당부했다.

밀운 스님은 1954년 대오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72년 봉선사에서 운허 스님을 법사로 건당 입실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봉은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총무부장,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 법규위원장, 봉선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원로의장, 명예원로의장, 봉선사 회주로 후학 지도와 도량 수호에 힘써 왔다.

'님의 침묵' 100주년…광화문서 민족 화합 노래한다

동국대 · 인제군 10월 11일 선포식
2026년 진행 기념사업 계획 발표
지역 함께하는 '청년만해축제'도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문학의 큰 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 발표 100주년인 2026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그 뜻을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동국대와 인제군, 님의침묵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10월 11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 설악관 대강당에서 '님의 침묵 100주년 다시 만해를 부른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윤재웅 총장과 최상기 군수가 직접 진행한 선포식에서는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기념사업 계획들이 소개됐다. '문화예술 전시·공연'은 내년 5월로 행사가 집중됐다. 동국대는 내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 화합·통합'을 주제로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고 만해 영상 콘텐츠 페스티벌, 만해 시 손글씨 시화전도 함께 연다.

인제군은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판소리로 구현한 창작 판소리 '만해의 사자후-독립선언에서 님의 침묵까지'를 내년 5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또 항일 민족시인들의 시집과 유품을 전시하는 '항일민족시인 특별전'과 흩어진 만해 스님의 유묵과 친필을 모아 전시하는 '만해 한용은 친필·유묵 전시회'도 진행된다.

학술·교육 행사도 다채롭다. 동국대는 교내 만해연구소를 중심으로 2월과 5월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 국제·국내학술대회를 각각 개최하며 만해아카이브 구축과 자료총서 발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 인제군에서는 법륜 스님과 저명 문학인 초청 강연을 5월 중 진행하며,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만해 인문학 아카데미'도 내년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인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청년만해축제'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보인다. 5월에는 홍대, 이태원 등에서 활동하는 젊은 버스커와 락밴드를 초청해 주민노래경연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청년만해 뮤직 페스트벌'과 인제군과 수도권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예술창작캠프가 진행되며 여름휴가 시즌에는 지역민과 피서객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창작판소리, 클래식 공연이 이뤄진다.

윤 총장은 "문화강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닌 노력의 결과다.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만해의 정신을 민족문화의 자산으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시·공연·학술·강연·탐방 등의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인제의 불교문화와 만해의 사상을 잇는 사업으로 인제군민과 함께 오세암 대장전 복원 불사와 만해의 길인 단풍나무 숲길 조성, 청년만해축제를 성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에 앞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는 '대한민국 경전의 도시 인제, 그리고 만해 한용운의 정신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석좌교수는 "인제군 남면 갑둔리에서 간행된 〈동경대전(東經大全)〉은 지식인에게는 한문경전으로, 민중에게는 한글 가사경전으로 전해진 개벽의 사건이었다"며 "이는 만해 스님이 〈십현담 주해〉와 〈님의 침묵〉을 함께 집필했던 열린 사유의 맥락과 통한다"고 강조했다.

인제=이동격 강원지사장

동국대 '영캠프' 열기 수계대법회로 잇는다

불교동아리 학생 · 장학생 대상
APEC 간화선 프로그램 점검

3500여 동국인이 불자로 거듭났던 '2025 영캠프'의 열기를 이을 수계법회가 열린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는 10월 1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계획과 성과를 공유·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2025 불교동아리 수계대법회'다. 11월 초 봉행될 예정인 수계대법회는 지난 9월 1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실제 올해 영캠프는 참가신청 시작 2분 만에 매진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고, 500석 규모의 추가 신청도 접수 개시와 동시에 마감됐다. 수계법회는 불교동아리 학생 및 불교계 장학금 수혜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건학위원장)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봉행된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맞춰 간화선을 세계인에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10월 28일 교내 대선방·중선방·공양동 등 선센터에서 'APEC 2025 KOREA 선(간화선)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APEC에 참석하는 각국 사절단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동국대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불교사전〉이 네이버 오픈사전PRO 표제어로 등록된 결과도 공유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및 어학사전의 표제어 검색결과로 〈동국역경원 불교사전〉이 노출될 수 있게 됐다.

신중일 기자

"10·27법난 기념관, 공공시설로 기능해야"

'제45주년 10·27법난 세미나'
교육 · 연대 프로그램 모색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인 '10·27법난'의 발생 경위와 피해 실태를 알리고, 갈등 치유와 피해 구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10·27법난 기념관 및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가적 공공시설로 기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진성 스님)는 10월 14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45주년 10·27법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10·27법난 갈등 치유와 피해 구제 시설 건립 실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과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및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불교적 해법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서울 봉은사에 들어서는 10·27법난 기념관은 부지면적 1만 2870㎡, 연면적 3만 1220㎡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연장과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추념 공간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 건립될 치유센터는 연면적 3675㎡,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추진 중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발제 '10·27법난 기념관 및 트라우마 센터 건립 현황'에서 "기념관과 치유센터가 항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국가적 공공시설로 기능해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 방식이 연구돼야 한다"면서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적 연대 방안 모색, 인권운동 전개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 수륙대법회 연다

11월 8일, 경내 적광전 앞 무대
극락왕생 발원…가족 평안 기원

선망조상·수자령·자살영가·반려동물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은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 금강경봉찬기도회는 11월 8일 오후 1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지난해 실시한 영가천혼무차대회를 넘어 수륙재를 포함해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로 확장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조상천도, 낙태아와 수자령, 영유아천도에서 자살영가와 반려동물도 포함했다. 영가의 천도와 해원, 그리고 남은 가족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다.

반려동물 천도는 전체 인구 30%에 달하는 155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염원을 반영한 천도다. 특히 월정사 부도밭에는 개부도 3기가 위치해 있다. 한국불교사상 유래없는 일로, 이는 통일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 김지장이 신라 개[犬]인 '선청'을 데리고 수행하며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게된 일화와 연결된다.

자현 스님은 10월 15일 서울 월정사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가에 수계첩을 통해 계율을 주고, 수륙무차법회를 개설해 천도하고자 한다"면서 "영가의 이고득락과 살아있는 이들의 죄의식을 소멸하고 도리를 다하게 해 행복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33-339-6791

임은호 기자



"조계사 국화축제서 가을 만끽하세요" 시민들에게 향긋한 국화 향기로 가을 정취를 전하는 서울 조계사 국화화엄축제가 10월 15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화축제는 10월 30일까지 이어지며 경내 곳곳에서 '성도부처님' '연꽃부처님' '초전법륜부처님 · 회화나무부처님' '열반부처님' '사적비' '하트다리' '탄생부처님'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김내영 기자

인하대 학생들, 수계법회로 참 제자 거듭

10월 2일, 인불회원 30여 명 동참
수미정사 주지 금선 스님 전계사로



인하대 불교학생회(회장 변유진, 이하 인불회)가 교내에서 처음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참 제자로 거듭났다.

인불회는 10월 2일 교내 동아리방에서 지도법사 금선 스님(인천 수미정사 주지)을 전계사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인불회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전계사로 인불회 회원들에게 직접 계와 법명을 전한 금선 스님은 "부처님처럼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새로 태어남을 축하한다"고 격려하고 "경전에 '물고기를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기가 난다'고 했듯, 오늘 받은 법명처럼 앞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계불자들은 참회 진언을 염송하며 연비와 함께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법명과 그 의미가 적힌 수계첩을 받으며 부처님 제자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청춘콘서트 신화, '청년페스타'로 재탄생

11월 7~9일 정토사회문화회관서
법륜 스님, 조인성 등 강연 진행

2018년까지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희망을 나누며 선풍적 인기를 구가했던 '청춘콘서트'가 7년 만에 새 모습을 갖춘 청년문화축제로 부활한다.

청년페스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해종, 이하 운영위)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동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2025 청년페스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움직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5 청년페스타'는 높은 자살률과 실업률 등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활력과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강연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지금 이대로 괜찮은 나'를 체험하며, 서로 연결되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대규모 축제로 꾸며진다는 게 운영위의 설명이다.

'청년페스타'는 대표 강연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대 소통의 대가들이 함께한다. 법륜 스님은 3차례에 걸쳐 즉문즉설, 사회 실천, 미래 비전을 주제로 청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방송인 김제동,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 배우 조인성 등이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의 장을 가질 예정이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예지 국회의원 등은 각각 청년 교육과 평화, 경제, 미래 정치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화세움 특강, 국제구호활동가들의 체험을 교류하는 NGO 토크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2025 청년페스타'는 종교와 상관없이 2030 청년이라면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youthfesta.com)서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